

나치 독일과 아랍의 반유대주의 동맹

- 지속과 단절을 둘러싼 논쟁*

윤 용 선**

“아랍과 독일은 유대인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인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하지 아민 알후세이니¹⁾

차 례

- I. 머리말
- II. 갈등의 원인으로서는 반유대주의
- III. 갈등의 결과로서 반유대주의
- IV. 맺는말

I. 머리말

나치 독일과 아랍 민족주의의 동맹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을 동맹으로 이끈 것은 공동의 적이었던 영불 제국주의와 유대인이었다. 메나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1) 알후세이니가 1941년 11월 28일 히틀러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David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anti-semitism from Nazism to Islamic Jiha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91.

(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을 지배하던 영불 제국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과 바이마르 공화정을 통해 독일을 억압하고 약탈한 제국주의였으며,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히틀러와 나치가 공개적으로 적대시했던 유대인은²⁾ 팔레스타인에 국가 건설을 의도해 아랍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과 아랍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나치-아랍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한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21년 영국에 의해 예루살렘의 대(大)무프티(Grand Mufti of Jerusalem)와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이슬람 최고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된 알후세이니(Amin al-Husayni)³⁾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지도자로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그는 자신처럼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 한 시오니즘 운동과 이에 우호적이었던 영국 위임통치에 저항해 1936년 봉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봉기에서는 이슬람주의, 반제국주의,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 등이 동원 이데올로기로 등장했으며, 훗날 아랍세계에 확산해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랍 반유대주의는 이때 시작되었다.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은 히틀러와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남긴 채 사라진 1945년 이후에도 여전히 아랍세계와 팔레스타인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동맹 파트너는 사라졌지만, 동맹을 성사시킨 적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뒤이은 나크바(Nakba)⁴⁾는 반유대주의 역사에서 의

2) 1920년 2월 24일 밤 뮌헨 호프브로이하우스(Hofbräuhaus)에서 개최된 창당대회에서 선언된 나치의 25개조 강령 4조는 유대인을 특별히 지목해 독일 민족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http://www.documentarchiv.de/wr/1920/nsdap-programm.html>)

3) 알후세이니는 1941년 10월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베를린에 체류하며 아랍어로 메나 지역에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선전하는 일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친위대에 입대한 후 발칸 반도의 무슬림을 전투 부대인 무장 친위대에 입대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으로 그는 전후 스위스에서 전범으로 체포되어 프랑스로 이송되었으나, 영국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1946년 이집트로 망명한 알후세이니는 1974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민족주의 운동에 매진했다.

4) 아랍어로 재앙 혹은 파국을 의미하는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추방당하거나 피난을 떠난 비극적인

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길고 길었던 사회적 소수자로서 유대인의 역사는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 마침내 끝났고, 유럽에서 차별과 박해의 이데올로기였던 반유대주의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탈바꿈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바라보는 세계의 가까운 시선은 주로 가해자 이스라엘로 향한다. 따라서 아랍 반유대주의는 인종주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 시키기보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절망과 분노의 표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의 뿌리 깊은 역사와 질긴 생명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랍의 반유대주의에서도 우려할만한 유대인 혐오가 존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은 9.11 이후 글로벌 이슈가 된 이슬람 지하디즘의 기원을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찾으며 ‘이슬람파시즘(Islamofascism)’⁵⁾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⁶⁾ 이와 반대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오늘날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팔레스타인 갈등을 포함한 중동 분쟁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바꿔 말해, 아랍 반유대주의는 중동 갈등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따라서 갈등이 해결되면 반유대주의 역시 함께 소멸할 것이라고 본다.⁷⁾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5) Ulrike Freitag, Israel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The Necessity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Arab Responses to Fascism and Nazism",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7(2011). pp.311-331, p.317.
- 6)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Jeffrey Herf, *Nazi propaganda for the Arab world* (Yale Univ. Press, 2009); Matthias Küntzel, *Jihad and Jew-hatred: Islamism, Nazism and the roots of 9/11* (New York, 2007); David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David G. Dalin/John F. Rothmann, Icon of evil : Hitler's mufti and the rise of radical Islam* (New York, 2008); Klaus-Michael Mallmann, Martin Cüppers, *Halbmond und Hakenkreuz: Das Dritte Reich, die Araber und Palästina* (Darmstadt, 2006); Chuck Morse, *The Nazi Connection to Islamic Terrorism: Adolf Hitler and Haj Amin al-Husseini* (Lincoln, NE: iUniverse, 2003) 등을 들 수 있다.
- 7) Yehoshafat Harkabi, *Arab Attitudes to Israel* (Jerusalem, 1972), p.298; Bernard Lewis, *Semites and Anti-Semites* (London, 1986), p.259; Werner Bergmann, "Zur Entstehung von Feindbildern im Konflikt um Palästina", Wolfgang Benz (ed.), *Jahrbuch für Antisemitismusforschung* 12 (Berlin: Metropol, 2003), pp.16-17. 아랍의 관점에서 홀로코스트 확대론과 거리를 두는 연구로는 Gilbert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the Arab-Israeli war of narratives* (New York: Metropolitan

이러한 논쟁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나치 독일과 아랍 민족주의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논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둘러싼 논쟁은 역사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슬람 테러리즘 역시 이러한 논쟁을 통해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다. 이슬람 테러리즘을 제국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저항으로 보는 관점과 그것의 기원을 나치즘에 찾으려는 관점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입장은 오늘날 중동/팔레스타인 문제에 내재한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줄고는 나치즘과 아랍 반유대주의의 관계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중동/팔레스타인 갈등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여부에 관한 대립적인 두 견해와 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및 유럽에서 출판된 영어 및 독일어 연구들을 스케치하고, 이어서 이러한 입장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에 내재한 역사정치적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인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도 아울러 평가해보고자 한다.

Books, 2009); Mustafa Kabha,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and its attitude toward the fascist and Nazi movements 1925 - 1945",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37, No.3(2011), pp. 437 - 450; Götz Nordbruch, "'Cultural fusion' of thought and ambitions? Memory, politics and the history of Arab - Nazi German encounters", *Middle Eastern Studies*, Vol. 47, No. 1(2011), pp.183~194; Ulrike Freitag and Israel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The Necessity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Arab Responses to Fascism and Nazism",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7(2011), pp.311-331; Meir Litvak, Esther Webman, *From Empathy to Denial: Arab Responses to the Holocaust* (Columbia Univ. Press, 2009); Peter Wien,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German Academia and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the Arab Lands and Nazi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42, no. 2(2010) pp.311~321; René Wildangel, "Auf der Suche nach dem Skandal. Eine Reaktion auf den Themenschwerpunkt 'Nazikollaborateure in der Dritten Welt'", in *Informationszentrum 3. Welt (iz3W)* no. 313(July/August 2009).

II. 갈등의 원인으로서는 반유대주의

알후세이니는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독일과 협력을 꾀했다. 1933년 1월 30일 수상으로 임명된 히틀러한테 첫 번째로 당당한 축전은 아랍에서 온 것이었다. 이어서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법⁸⁾이 통과되고, 유대인 재산의 강제 몰수가 시작되었을 때도 아랍 전역으로부터 이를 환영하는 전보가 쇄도했다.⁹⁾ 나치 독일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영국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1937년부터 알후세이니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을 동맹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독일은 재정 지원과 무기 공급을 통해 무장봉기를 도왔다.¹⁰⁾ 이와 함께 아랍에 인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아랍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독일에서 공부했고, 독일 회사들은 아랍 연수생을 교육했으며, 아랍 정치가들은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나치 전당대회에 초청받았고, 군사지도자들은 독일군의 훈련을 참관했다.¹¹⁾

베를린에는 '아랍 클럽'이 생겨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과 나치즘을 선전하는 아랍어 방송의 센터 역할을 했다. 나치의 아랍어 선전방송은 1939년 4월 25일 베를린에서 멀지 않은 브란덴부르크의 작은 마을 체젠(Zeesen)에서 시작했으며, 6개월 후인 10월부터는 하루에 15시간, 일주일에 7일로 방송시간이 늘어났다. 1941년부터는 알후세이니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¹²⁾ 이처럼 유대인은 아랍 민족주의와 나치 독일을 협력으로 이끈 매개체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우호, 협력, 경멸 등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것이었다.

8) 집권하자마자 유대인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 나치는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를 법제화했다. 나치는 이 법의 제정으로 유대인을 제도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공식 명칭이 '독일 혈통 및 명예의 보호에 관한 법(das 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은 유대인과 독일인 간에 통혼과 혼외정사 등을 금지했다.

9) David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p.97.

10) Matthias Küntzel, "Ein deutsches Schweigen", *taz*, 2003년 4월 12일.

11) Küntzel, *Jihad and Jew-Hatred*, p.30.

12)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pp.99~100.

정치와 군사에서 협력 관계는 공동의 적인 영불 제국주의, 공산주의, 시오니즘 등에 대한 적대감에서 출발했다. 협력의 또 다른 기반은 나치의 반유대주의로, 알후세이니를 비롯한 일부 아랍 및 무슬림 지도자는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히틀러와 친위대 장관 히믈러(Heinrich Himmler)는 종교와 정치이념으로서 이슬람에 대해 사석에서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히틀러가 이슬람과 아랍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는 히틀러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였던 슈페어(Albert Speer)의 회고록 *기억(Erinnerung)*에 잘 나타난다. 히틀러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못된 종교를 가진 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조국에 대한 희생을 최고의 선으로 여긴 일본인의 종교를 우리는 왜 갖지 못했을까요? 이슬람 역시 기독교보다 우리에게 더 적합한 종교입니다. 왜 하필 우리는 굴종적이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를 갖게 되었을까요?”¹³⁾

그러나 히틀러는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아랍인은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비해 엄격하고, 군국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이 히틀러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이슬람 인식은 그를 예방한 아랍 지도자들한테서 들은 것에 불과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자 이븐 사우드(Ibn Saud)의 특사로 1939년 히틀러를 방문한 알가르가니(Khalid al-Hud al-Gargani)는 8세기 푸아티에 전투에서 우마이야드 칼리파트(Umayyad Caliphate)이 승리했다면 세계는 이슬람화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틀러는 들었던 이야기에 자신을 생각을 덧붙였다. 이슬람이 승리했다면 게르만족은 새로운 종교를 강요받았을 것이며, 칼로 믿음을 전파하라는 이 종교의 가르침은 게르만족에게 적합하다는 것이 히틀러의 생각이었다. 한편 인종적으로 열등한 아랍 정복 세력은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온 피정복민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며, 결국은 아랍인이 아니라 이슬람화한 게르만족이 무슬림 세계제국을 다스렸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¹⁴⁾ 아랍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모

13) Albert Speer, *Erinnerungen* (Frankfurt a. M., 1969), p.110;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128.

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 8월 22일 독일군 최고 지휘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극동과 아라비아에서 계속해서 소요사태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민족인 우리가 보기에 그곳의 민족들은 기껏해야 학대받기를 원하는 유인원에 가까운 존재들(lackierte Halbaffen)입니다.”¹⁵⁾

이처럼 히틀러와 나치는 모든 국가와 민족을 자의적인 인종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반유대주의는 모든 인종주의를 뺀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모든 인종주의는 반유대주의 앞에서 실체가 불분명해지고 단순한 수사(修辭)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아랍인에 대한 인종주의는 유대인의 경우와 달리 현실적 이해 관계를 초월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¹⁶⁾ 나치는 아랍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했음에도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경쟁하는 독일을 도운 아랍인은 정중하게 대했다. 나치 독일과 긴밀하게 협력한 알후세이니는 ‘명예 아리아인(honorary Aryan)’이 되었다. 그는 외모 덕분에 인종적으로도 아리아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블론드 머리, 붉은 수염, 푸른 눈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나치가 이상화했던 북유럽인의 외모와 같았다. 이와 관련해 히틀러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조상 중에 아리아인이 있거나 로마 혈통을 물려받은 것 같

14) Speer, *Erinnerungen*, pp.109~110. 알후세이니의 회고에 따르면, 히틀러는 이슬람 문명을 유럽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슬람의 침략이 서유럽에서 8세기에 좌절되고, 남동 유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이 실패로 끝나자, 유럽은 문명화를 위한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보았다. 게다가 게르만족이 이슬람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321 각주 95) 사실 여부가 모호한 이 주장은 알후세이니가 히틀러를 빙자해 아랍 우월주의를 드러낸다는 인상을 준다. 철저한 인종주의자였던 친위대 장관 히틀러가 이처럼 아랍 문명을 추켜세웠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15) *Akten zur deutschen Auswärtigen Politik 1918-1945*, Serie D, vol.7, p.172. Stefan Wild, “National Socialism in the Arab near East between 1933 and 1939”, *Die Welt des Islams*, New Series, Bd. 25, Nr.1/4 (1985), pp.126~173, p.140에서 재인용.

16) 유럽과 독일의 반유대주의 역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나타나는 유대인 혐오는 기독교에 뿌리를 둔 오랜 역사를 가진 인종주의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은 인상을 준다.”¹⁷⁾ 외모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나치 인종주의의 조잡한 피상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의 이데올로기인 나치 인종주의에서 반유대주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었으며, 대아랍 동맹 역시 그것에 근거했다. 1939년 이루어진 히틀러와 알가르가니의 대화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 총통은 우리가 아랍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1) 우리는 아라비아에서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없었고, 2) 우리는 같은 적을 가졌기 때문이며, 여기에 덧붙이기를 3) 우리는 유대인에 맞서 함께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¹⁸⁾ 그러나 히틀러는 아랍에서 온 손님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감추었다. 즉,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라고 부추겼으며, 영국이 지정한 유대인 이주민 거주지 이외의 주변 지역을 확보하도록 시오니즘 단체를 도왔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¹⁹⁾ 물론 훗날 아우슈비츠로 귀결된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고

17) Dalin, Rothmann, *Icon of evil*, p.47

18)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128.

19) 독일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추진한 하바라 협정(Haavara Agreement)은 나치 독일의 경제부와 독일 시오니즘 연맹이 약 3개월에 걸쳐 협상한 끝에 1933년 8월 25일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1933~39년에 약 5~6만 명의 독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 팔레스타인 이주를 원하는 유대인이 독일의 송금 사무소(Transfer Office)에 돈을 예치하면, 송금 사무소는 이 돈으로 독일제 상품을 구입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수출한다. 팔레스타인의 수입업자가 물품 대금을 독일 시오니즘 연맹이 직접 관리하는 앵글로-팔레스타인 은행(Anglo-Palestine Bank)에 지급하면, 유대인 이민자는 이 은행에서 독일 송금 사무소에 예치했던 돈을 찾는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나중에는 기계도 수출되었는데, 이 경우 이민자는 돈을 찾는 대신 기계를 수입한 회사의 지분을 갖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던 영국 역시 경제력을 갖춘 유대인 이주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협정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유대인 이주에 항의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1937년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유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하바라 협정에 따른 이주는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계속되었다. 나치 독일은 자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 협정을 체결했다. 독일은 협정으로 약 1억 4천만 제국 마르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그러나 협정은 경제적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나치가 팔레스타인 이주를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보았다는 점이다. 나치 내부에서는 ‘유대인 문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목소리가 존재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인물이 밀덴슈타인(Leopold von Mildenstein)이었다. 언론인으로 훗날 친위대 소령이 된 그는 나치 집권 초기인 1933년 4월 베를린 출신 시오니스트 투홀러(Kurt Tuchler)와 부부동반으로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는데, 여행 목적은 팔레스타

려하면, 하바라 협정 같은 나치와 시오니즘의 협력은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나치와 아랍 민족주의의 반유대주의적 동맹이 오늘날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오늘날 중동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여전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정치학자 쿤첼(Matthias Küntzel)은 독일 좌파를 향해 도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즉, 하마스의 선배가 나치와 협력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독일 좌파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며, 독일 좌파가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내재하는 나치즘의 흔적에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더 나아가 나치와 아랍의 동맹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하마스는 9.11 이후 독일에서 반미와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며 독일에서 자금을 모으고 자유롭게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독일 나치와 동맹을 맺기도 했다.²⁰⁾ 그의 주장대로라면, 칠천지원수인 독일 좌파와 네오나치는 하마스의 반미/반이스라엘 투쟁, 즉 '반제국주의 투쟁'을 매개로 하나가 된다.

나치-아랍 동맹의 지속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945년 이후에도 계속된 나치와 아랍 민족주의의 인적 교류를 지적한다. 적지 않은 나치 전범들이 전후 이집트로 향한 것은 단순히 은신처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반유대주의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²¹⁾ 나치 전범들의 활동영역은 아랍 민족주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이집트 정부와 군에 자문할 정도로 광범위했다고 본다. 이

인 이주를 통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행에서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반면, 팔레스타인 아랍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귀국 후 그는 1934년 9월 26일~10월 9일에 나치가 발행한 잡지 *공격(Der Angriff)*에 12회에 걸쳐 여행기를 연재하며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옹호했다. 그러나 밀턴슈타인이 10개월 걸친 친위대 근무를 마치고 제국선전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러한 시오니즘적인 방안은 점차 힘을 잃고 말았다.(Axel Meier, "Die Artikelserie 'Ein Nazi fährt nach Palästina'", bpb(2014.11.18.), <http://www.bpb.de/geschichte/nationalsozialismus/die-wohnung/195248/die-artikelserie-ein-nazifaehrt-nach-palaestina>)

20) Küntzel, "Ein deutsches Schweigen".

21) Küntzel, *Jihad and Jew-Hatred*, p.47.

집트로 도주한 나치 전범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무슬림 형제단으로, 알후세이니는 무장 친위대 중령 출신 스킨헤드(Otto Skorzeny)를 나세르 정부에서 일하도록 주선했다. 이집트에서 활동한 나치 고위층은 괴벨스의 부관이었던 레어스(Johann von Leers), 뷔체(Franz Bünsche), 하이덴(Louis Heiden) 등으로, 하이덴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의 투쟁*을 아랍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공군 엘리트였던 루델(Hans-Ulrich Rudel)과 히틀러의 참모였던 친위대 대령 돌만(Eugen Dollmann)은 많은 나치 전범들을 이집트로 피신시키고 정부 고위직에 앉히는 역할을 했다.²²⁾

퀀첼은 알후세이니아와 하마스 사이에 단절이 아닌 지속이 존재하는 근거를 통치 스타일이나 노선 등에서도 찾는다. 먼저, 쿠란을 이슬람주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반기를 드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하마스의 폭력은 1920~30년대 알후세이니아와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1차 인티파다(1987~93년) 시기에만 무려 940명 이상의 '부역자들'이 살해되었다. 둘째, 팔레스타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철저히 막는 하마스의 정책 역시 무프티와 유사하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온건파인 노동당의 미츠나(Amram Mitzna)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마스가 2003년 1월 24명의 이스라엘인을 학살한 만행을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제시한다. 셋째, 하마스는 유대인의 세계지배 음모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본다. 1988년 발표된 *하마스 헌장(Hamas Charter)*은 유대인을 '세계의 악'으로 규정하고, 프랑스 혁명, 1-2차 세계대전, 제3세계 착취, 약물의 확산 등이 모두 유대인의 세계지배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²³⁾

퀀첼은 *하마스 헌장*과 알카에다의 강령이 반유대주의적 성격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빈라덴(Osama bin Laden)이 2002년 10월 미국 국민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킨다. "미국과 서구를 볼모로 잡은 ... 유대인은 그

22)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pp.93~94. 이집트로 도주한 나치 고위층 명단은 p.94 참고.

23) Küntzel, "Ein deutsches Schweigen".

대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그대들의 희생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빈라덴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 유대인을 지목한다는 면에서 전형적인 반유대주의라는 것이 퀴첼의 주장이다.²⁴⁾ 이처럼 퀴첼은 지하디즘의 이념적 토대가 독일의 좌파가 주장하듯이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반유대주의이며, 그 기원은 알후세이니와 나치 독일의 동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그러나 지하디즘의 기원을 나치 독일로 보는 것 못지않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또 다른 주장은 나치가 아랍과 협력해 궁극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메나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독일이 알후세이니를 동원해 메나 지역에서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키는 아랍어 방송을 한 이유는 홀로코스트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는 일종의 정지(整地) 작업이었다고 본다.²⁵⁾ 심지어 패터슨은 앞서 언급한 *하바라* 협정조차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협정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는 아랍 민족주의가 유대인을 확실하게 절멸할 것이라는 독일의 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다.²⁶⁾

말만(Klaus Michael Mallmann)과 쿠퍼스(Martin Cüppers)의 주장도 패터슨과 다르지 않다. 즉, 두 사람은 나치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 정책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1936년 알후세이니의 주도하에 발발한 팔레스타인 봉기로 본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봉기를 통해 반유대주의 투쟁 동맹 파트너를 발견한 나치는 팔레스타인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투쟁에 영국을 상대로 한 반제국주의 투쟁이 더해지며 더욱 긴밀해진 양자의 관계는 유대인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2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동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을 시작한 나치는 아랍의 반유대주의 세력과 협력해 학살을 팔레스타인 유대인(Yishuv)에게로 확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치의 이슈브 학살 계획은 엘알라메인에서 로멜(Erwin Rommel) 전차군단의 패배로 메나 지역의 전황이 악화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말만과 쿠퍼스의 주장이

24) Küntzel, “Ein deutsches Schweigen”.

25) 홀로코스트 확대론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각주 7을 참고.

26)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p.97.

다.²⁷⁾ 나치의 인종주의적 유대인 범주는 유럽의 아슈케나짐과 메나 지역의 세파르딤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홀로코스트의 메나 확대론은 논의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홀로코스트 확대론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확대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은 정복이 아니라 자기방어이기 때문이다. 유럽 유대인이 무기력하게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끌려갔다면,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학살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민족의 영원인 유대 국가를 실현한 셈이 된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아랍 반유대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했으며, 그렇다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나치-아랍 동맹으로부터 비롯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은 유대인 학살의 흑으로 일거에 정당성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만다.²⁸⁾ 확대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건국으로 귀결된 시오니즘은 유럽 반유대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아랍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생전에 홀로코스트의 신화화와 정치화를 경계하고 비판했던 유대계 미국 역사학자 노빅(Peter Novick)이 지적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럽 기독교의 오랜 반유대주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떠안은 결과였다.²⁹⁾ 바꿔 말해, 지극히 유럽적인 문제인 반유대주의가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무고한 팔레스타인한테 떠넘겨진 셈이다 -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유럽에 대한 비판은 차제에 논하기로 하자. 물론 반(反)반유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유럽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팔레스타인적인 맥락을 갖는다. 홀로코스트를 메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나치의 계획은 알후세이니 같은 인물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치 독일과 아랍 민족주의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27) Mallmann, Cüppers, *Halbmond und Hakenkreuz*, pp.vi~viii.

28) Wien,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p.311.

29) Peter Novick, *The Holocaust in American Life* (Boston, 1999), p.157.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중동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중동 문제는 20세기 현대사의 주요 주제인데, 현대사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가 현실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역사정치(Geschichtspolitik)³⁰⁾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아랍 반유대주의에 관한 논의는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대팔레스타인 정책 같은 현실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정복에 가까운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한 시오니즘은 몇 번의 전쟁만으로 팔레스타인 지배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명분을 공격이 아닌 방어에서 찾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아쉬카(Gilbert Achcar)는 이스라엘이 정통성의 위기를 항상 홀로코스트의 정치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지적한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 대대적으로 부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의 가해자 이미지를 피해자 이미지로 전환하는 도구로 활용되자, 아랍 세계는 홀로코스트의 부정으로 이에 대응했다고 본다.³¹⁾ 이러한 악순환은 이스라엘의 적대세력이 조장하기도

30) '역사정치'란 용어는 빈클러(Heinrich August Winkler)와 마이어(Christian Meie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Henning Köhler, "Geschichtspolitik?", *Merkur* 1(1987): 41, p.73) 역사정치에 관한 연구로는 Heinrich August Winkler (Hrsg.), *Griff nach der Deutungsmacht. Zur Geschichte der Geschichtspolitik in Deutschland* (Göttingen, 2004) 참고.

31)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256. 이에 대해 퀸철헤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레바논 침공 당시 홀로코스트를 활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한다. 당시 이스라엘 수상 베긴(Menachem Begin)이 베이루트에 체류하던 아라파트를 히틀러와 비교하자,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레바논 침공이 베긴의 지나친 홀로코스트 집착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이용한 것은 베긴 같은 일부 정치가이지 이스라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Matthias Küntzel,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the Middle East: New Debates", Alvin H. Rosenfeld (ed.), *Resurgent Antisemitism. Global Perspectives* (Indiana Univ. Press, 2013), pp.382-402, p.394) 프라이탁 역시 아랍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희생자의 수를 의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Samir Grees, „Krieg der Narrative," www.Qantara.de(July 5, 2010).

한다. 즉, 하마스, 헤즈볼라, 무슬림 형제단, 이란 등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지만, 그들이 분노하며 외치는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강화해주었다. 냉전 시대에 한반도를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던 적대적 공생관계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의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하는 반유대주의 연구는 아랍 반유대주의가 알후세이니로부터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일종의 계보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 1946년 이집트로 망명한 알후세이니는 무슬림 형제단의 창설자인 알바나(Hassan al-Banna)와 1920년대부터 막역한 사이였고, 덕분에 그의 반유대주의는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어서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 격인 하마스가 반유대주의를 이어받았다고 본다.³²⁾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에는 이처럼 나름의 역사가 있는 아랍 반유대주의자가 자리한다는 것이다.³³⁾ 이렇게 보면, 1920~30년대 독일에서 정치 현상으로 등장한 반유대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아랍 세계에서 지속하고 있으며, 이때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의 본산이 아니라 반(反)반유대주의의 보루가 된다.

32) 나치즘의 영향을 배제한 채 무슬림 형제단과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Abd Al-Fattah M. El-Awaisi, *The Muslim Brothers and the Palestine Question 1928-1947*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1998), p.153; Israel Gershoni, "The Muslim Brothers and the Arab Revolt in Palestine, 1936-39," *Middle Eastern Studies* 22, no. 3 (1986): pp. 367-97를 참고. 두 저자 모두 무슬림 형제단과 알후세이니가 운동과 이념에서 밀접한 관계였다고 본다.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163에서 재인용.

33) Küntzel,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the Middle East", p.389. 선정적인 언론 역시 9.11 이후 지하디즘에 경악하고 분노한 대중의 심리를 자극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보수 언론인 모스(Chuck Morse)의 발언을 보자. "유럽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다.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속하고 있다. 히틀러가 만든 절멸수용소의 화장터는 가능한 많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 폭탄으로 대체되었다."(Morse, *The Nazi Connection to Islamic Terrorism*, p.xi.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170에서 재인용).

Ⅲ. 갈등의 결과로서 반유대주의

아랍의 반유대주의와 중동 및 팔레스타인 갈등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에게 아랍 세계는 비유럽 세계의 파시즘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흥미를 갖는 대상 중 하나이다. 이 연구 분야에서 기존의 정설은 주로 아랍 세계의 친나치 세력에 초점을 맞춰 파시즘이 아랍 전역에 확산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국제정치의 고전적인 정의에 근거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영불 제국주의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는 동일한 적이 아랍 세계가 파시즘으로 기울게 만든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프라이탁(Ulrike Freitag)과 게르쇼니(Israel Gershoni) 같은 중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아랍과 나치즘의 관계라는 역사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에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이슬람 근본주의, 9.11 이후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하디즘 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짙게 투영되어있다고 본다. 퀴첼을 비롯해 9.11 이후 이슬람 테러를 주제로 발표된 연구들이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생각이다.³⁴⁾

프라이탁과 게르쇼니는 나치즘이 알후세이니를 매개로 알바나(Hasan al-Banna)와 무슬림 형제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퀴첼의 주장에 대해 알바나는 나치즘 역시 제국주의로 간주해 철저하게 배격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다. 게다가 그는 인종주의와 전체주의를 표방한 나치즘을 새로운 형태의 서구 제국주의로 간주하고 영불의 구제국주의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연설이나 글, 활동 등에서 나치즘에 호감을 드러낸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프라이탁과 게르쇼니는 알후세이니와 알바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일까? 퀴첼은 두 아랍 민족주의자의 긴밀한 관계를 근거로 무슬림

34) Freitag,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p.312.

형제단과 나치가 일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 사람은 알바나의 무슬림 형제단이 알후세이니의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지원한 것과 알후세이니가 나치와 협력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즉, 알바나의 알후세이니 지원과 알후세이니의 나치 협력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지만, 두 사안은 상호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나치와 무슬림 형제단은 공히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지원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양자의 동맹이나 협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³⁵⁾

물론 두 사람의 주장은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페터슨이 지적한 바대로, 1945년 이후 나치 전범들이 이집트에서 활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치 전범들이 이집트에서 활동한 시기는 알바나의 사망(1949년 초) 이후인 1950년대이지만, 프라이탁/게르쇼니의 주장대로 알바나가 나치에 적대적이었다면 무슬림 형제단이 나치 전범들과 협력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알바나와 나치의 관계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대의 추론도 가능하다. 즉, 페터슨의 주장과 달리 나치 전범들의 이집트 활동이 무슬림 형제단과 무관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크르체니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이집트의 로켓 개발에 관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모사드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프라이탁/게르쇼니는 알바나에 대한 반론에 이어서 알후세이니에 관해서도 반유대주의 연구와 다른 견해를 개진한다. 즉, 아랍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알후세이니의 위상이 나치-아랍 동맹 테제가 주장하는 만큼 절대적이지 않다고 본다. 알후세이니의 친나치 행적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아랍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그의 역할과 위상을 둘러싸고는 전혀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친 독일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는 진영 내에서 알후세이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

35) Freitag,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p.313.

36) Marianne Enigl, "Zeitgeschichte: Der österreichische SS-Offizier Skorzeny und der Mossad", *profil* (2016년 4월 5일)

제한다. 예를 들어, 알후세이니가 주도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은 나치독일 처럼 총통 일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팽팽하고 격렬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³⁷⁾ 물론 알후세이니는 1946년 이집트로 망명할 당시 무슬림 형제단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전후 이집트의 영국에 대한 투쟁이 강화된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과거 영국을 상대로 반제국주의 운동을 주도한 알후세이니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영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³⁸⁾

이스라엘 정치가 엘펠렉(Zvi Elpeleg) 역시 알후세이니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그는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남부 레바논 등에서 이스라엘 군정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알후세이니가 1974년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이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진영의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알후세이니의 일대기에서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지 아민의 사망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는 않았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지도부가 민족주의 진영을 한동안 이끌었고, 그들은 1960년대 말부터 과거의 주도 세력보다 더 성공적으로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단결시켰다. ... 하지 아민에 대한 기억은 팔레스타인 대중의 뇌리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난민촌은 그의 이름을 기념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 역시 없었다. ... 하지 아민은 누구보다 지도자의 책임감이 투철했으며 평생을 자신의 국민을 위해 헌신했으나, 세상을 떠난 후에는 패배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³⁹⁾

프라이탁/게르쇼니는 말만/퀴퍼스의 연구가 대상의 디테일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말만/퀴퍼스의 연구는 마치 민족주의 진영 전체가 나치독일에 우호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랍 민

37) Wien,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p.318.

38) Freitag,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p.326.

39) Zvi Elpeleg, Shmuel Himelstein, *The Grand Mufti: Haj Amin Al-Hussaini, Founder of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Routledge, 1993), p.165.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163에서 재인용.

족주의자들 중 소수만이 친 나치 성향이었다는 것이 프라이탁/게르쇼니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먼저, 알후세이니의 낙관적인 예상과 달리 나치 독일은 망명 아랍인들을 독일군에 입대시키는 데 애를 먹었다고 본다. 당시 아랍 민족주의 진영 내부의 분위기가 친 독일적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다. 아랍세계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독일군이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보도 역시 독일 정보기관이 만든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⁴⁰⁾

게르쇼니는 최근 연구에서 전간기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아랍 민족주의 진영과 정치권 내에 독일 및 이탈리아 파시즘과 동맹을 추구한 세력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도 존재했으며, 그들은 유럽의 이념적 동지들처럼 파시즘에 적대적이었다고 본다.⁴¹⁾ 말하자면, 아랍세계 역시 전간기 유럽의 정치권과 지식계에 휘몰아친 이념적 내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중동 분쟁이라는 현실정치에 매몰되어 다양한 역사들을 외면한 채 나치-아랍의 반유대주의적 커넥션을 취사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아랍어 자료를 중시하는 학자들의 연구는 아랍세계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일반화를 경계한다. 독일의 빌트양겔(René Wildangel)과 노르트브루흐(Götz Nordbruch) 역시 아랍어 자료를 통해 아랍세계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관찰하는 학자들로, 이들 역시 아랍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강조한다.⁴²⁾ 두 사람은 특히 당시 아랍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1945년 이전 아랍세계에 반유대주의는 분명 존재했지만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빌트양

40) Freitag,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p.314.

41)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연구로는 Israel Gershoni (ed), *Arab Responses to Fascism and Nazism: Attraction and Repulsion* (Univ. of Texas Press, 2014)를 들 수 있다.

42) Götz Nordbruch, *Nazism in Syria and Lebanon: The Ambivalence of the German Option, 1933-1945* (Routledge, 2008); René Wildangel, *Zwischen Achse und Mandatsmacht: Palästina und der Nationalsozialismus*, Zentrum Moderner Orient Studien, vol. 24 (Berlin, 2007).

엘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언론은 독일보다 영국에 우호적인 기사를 더 많이 게재했으며,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유발한다고 보아 나치의 반유대주의를 비난했다. 1945년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 중동전쟁, 일부 아랍 국가에서 등장한 군부독재 등으로 독설로 가득한 반유대주의가 아랍세계에 나타났지만,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맥락을 갖는다는 점을 두 사람은 강조한다.⁴³⁾

아랍 자료의 분석을 통해 맥락에 주목하는 중동 및 이슬람 전문가들은 아랍의 반유대주의를 비판하지만 납득할 만한 현상으로 본다. 그들은 독일의 유대인 혐오가 비이성적인 망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아랍 세계에 존재하는 유대인 혐오는 현실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 비해 덜 불합리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아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상으로서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 원인과 맥락에 주목한다. 그들은 아랍어 문헌이나 사료를 통해 아랍의 관점을 접하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정통하다. 서구의 반유대주의 연구가 외부의 이질적인 시선으로 아랍 세계를 바라보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 그들은 내재적 비판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물론 내재적 비판과 주권주의 사이의 경계는 항상 모호하다. 그러나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있는 중동/이슬람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은 주권주의의 폐해보다 친미/친이스라엘로 경도된 시각에 균형감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치-아랍 동맹에 관한 논의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1930년대 알후세이니와 오늘날 아랍 세계에서 목격되는 반유대주의가 일관되게 하나의 선상에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유럽의 반대주의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논란을 더욱 키운다.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아랍의 반유대주의는 이미 1930년대부터 유럽과는 다른 맥락을 갖고 있었는데,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인종주의에 근거한다면 아랍의

43) Wien,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pp.316~320에서 재인용. 이 글은 상기한 노르트브루흐와 빌트앙엘의 저서에 대한 서평이다.

경우는 반제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아랍에서 목격되는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부정론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랍 민족주의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여전히 제국주의와 연관 속에서 이해한다.⁴⁴⁾ 프락이탁/게르쇼니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아랍 반유대주의는 항상 반제국주의와 결합하는데 - 1930년대는 영국 제국주의, 오늘날에는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제국주의 - 바로 이 점에서 독일 및 유럽의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일상에서 목격하는 이스라엘의 폭력은 반유대주의의 형성에서 지식인의 펜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영향은 아랍인의 반유대주의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일부 논자들은 팔레스타인 및 중동 문제의 해결이 아랍 반유대주의의 소멸을 위한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의미이다. "아랍의 반유대주의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중 하나이다. ...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해결된다면, 반유대주의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⁴⁵⁾ 이스라엘군 장교이자 정치학자였던 하르카비(Yehoshafat Harkabi)가 1972년 자신의 저서에서 했던 말이다. 유대계로 미국의 중동 전문가인 루이스(Bernard Lewis) 역시 1985년에 유럽과 아랍 사이에는 반유대주의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기독교도 반유대주의자한테는 좋은 구실이자 혐오의 배출구 역할을 하지만, 무슬림 반유대주의자한테는 원인이다."⁴⁶⁾

아쉬카 역시 홀로코스트의 부정에서도 유럽과 아랍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배하는 백인의 인종주의와 억압받는 흑인의 인종주의가 같을 수 없듯이, 억압자가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것과 피억압자가 부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⁴⁷⁾ 아쉬카가 말하는 방어적 반유대주의의 정당성은 일리가 있다. 유

44) Freitag,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p.316.

45) Harkabi, *Arab Attitudes to Israel*, p.298.

46) Lewis, *Semites and Anti-Semites*, London, p.259.

47)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276.

럽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참혹한 폭력으로 발전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큰 아랍 반유대주의가 유대인 학살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퀴첼은 이러한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다. 반유대주의에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것은 후자에게 '도덕적 백지위임장(a moral carte blanche)'을 주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한다.⁴⁸⁾ 약자에게는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카의 지적대로, 약자에게 허락된 것은 오로지 분노의 표현뿐임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⁴⁹⁾

이슬람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 모두 현실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퀴첼을 위시한 반유대주의 연구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지하디즘과 인티파다의 기원을 나치즘에서 찾음으로써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정당성을 역사에서 찾는다면, 원인과 맥락을 강조하는 아랍 연구는 이슬람 테러리즘을 대응으로 봄으로써 미-이 동맹의 중동 정책에 내재하는 억압과 폭력을 세계에 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현실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 말하자면, 이슬람의 폭력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약자의 투쟁방식이라는 것이 아랍 민족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테러 문제에서는 이를 유발하는 원인과 배경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줄고가 다룬 주제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1930년대 나치 독일과 알후세이니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민족주

48) Küntzel, "The Roots of Antisemitism in the Middle East", p.395.

49) Gilbert Achcar, "Israel's Propaganda War: Blame the Grand Mufti. Gilbert Achcar Interviewed by George Miller", <http://mrzine.monthlyreview.org/2010/achcar120510p.html>

의 운동의 협력 시기의 경우, 이 동맹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가 홀로코스트를 메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2) 9.11 이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슬람 근본주의의 폭력성이 나치 독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문제인 홀로코스트 확대론은 이스라엘 건국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큼 현실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치-아랍 동맹에 관한 논의는 역사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띤다. 확대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럽에서 자행된 학살을 아랍에서는 막으려는 유대 민족의 최소한의 자기방어 행위로 정당화된다. 현재의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행위의 지속이자 연장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가해가 아니라 자위로 이해된다. 오늘날 메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은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 즉, 빌트앙엘의 지적처럼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 건국과 국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될수록, 아랍 민족주의가 홀로코스트를 인정하기는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⁵⁰⁾ 1945년 9월 개최된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 총회에서 행한 알바나의 연설은 홀로코스트를 바라보는 아랍의 솔직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유대인의 고통에 대해 동정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아랍인을 상대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⁵¹⁾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치-아랍 동맹은 순수한 역사로 남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스라엘에 의한 홀로코스트의 정치적 도구화와 상관없이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랍 민족주의는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랍 민족주의의 홀로코스트 부정은 유럽의 네오 나치한테서 발견되는 반유대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팔레스타인 문제와 결부된 현실정치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정당

50) Wildangel, *Zwischen Achse und Mandatsmacht*, p.403.

51)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p.164.

화하는 홀로코스트를 인정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먼 훗날, 즉 현재가 오랜 과거가 되었을 때나 가능할지 모른다.

두 번째 쟁점인 이슬람의 폭력성과 나치 독일의 상관관계 문제 역시 역사라기 보다 현실정치에 가깝다. 중동/이슬람 연구자들은 나치 독일 - 알후세이니 - 21세기 지하디즘으로 이어지는 테러리즘의 지속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과도한 단순화로 역사정치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반유대주의가 유대 사회를 싸잡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듯이 반유대주의 연구 역시 아랍 세계를 획일화하는데, 이는 역사의 정치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랍어 사료들은 아랍의 정치권에 수많은 세력이 난립했으며,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오늘날의 지하디즘 역시 단선적인 발전과정이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에 뿌리를 둔 복잡다단한 배경과 맥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슬람 테러리즘을 나치와 결부시키면, 크게 보아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먼저, 지하디즘은 나치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전제만으로도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그로 인해 테러리즘의 인과관계에서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다. 두 번째 효과는 더욱 중요하다. 즉, 나치의 폭력은 본질적으로 반유대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전제하면, 나치즘-지하디즘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반이스라엘로 귀결된다. 그럴 경우, 팔레스타인의 가해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미지 위에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의 선봉 이미지가 놓이게 된다.

나치-아랍 동맹의 지속과 단절을 주장하는 양측 모두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 역사란 모노톤이 아니고 다채롭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떠한 역사를 선택하고 강조할 것인가이다. 잇을 만하면 TV 화면에 등장하는 하마스의 초라한 박격포 공격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의 유혈사태는 정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혈투를 벌인다는 면에서 더 비극적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 중에는 2천 년을 유럽에서 살아온 유대인을 그보다 더 오래 팔레스타인에서 살아온 아랍인의 삶의 터전으로 몰아낸 유럽의 책임을 묻는 이는 거의 없다. 중동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미국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나치-아랍 동맹 담론은 아랍 민족주의를 20세기 세계사에서 악(惡)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나치즘과 결부시켜 서구 제국주의의 책임을 감추려는 역사정치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참 고 문 헌

- Albert Speer, *Erinnerungen* (Frankfurt a. M., 1969).
- Axel Meier, “Die Artikelserie ‘Ein Nazi fährt nach Palästina’”,
bpb(2014.11.18.),
<http://www.bpb.de/geschichte/nationalsozialismus/die-wohnung/195248/die-artikelserie-ein-nazifaehrt-nach-palaestina>
- Bernard Lewis, *Semites and Anti-Semites* (London, 1986),
- Chuck Morse, *The Nazi Connection to Islamic Terrorism: Adolf Hitler and Haj Amin al-Husseini* (Lincoln, NE: iUniverse, 2003).
- David G. Dalin, John F. Rothmann, *Icon of evil : Hitler’s mufti and the rise of radical Islam* (New York, 2008).
- David Patterson, *A genealogy of evil: anti-semitism from Nazism to Islamic Jiha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Gilbert Achcar, “Israel’s Propaganda War: Blame the Grand Mufti. Gilbert Achcar Interviewed by George Miller”,
<http://mrzine.monthlyreview.org/2010/achcar120510p.html>
- Gilbert Achcar, *The Arabs and the Holocaust: The Arab-Israeli War of Narratives* (New York, 2010).
- Götz Nordbruch, “‘Cultural fusion’ of thought and ambitions? Memory, politics and the history of Arab-Nazi German encounters”, *Middle Eastern Studies*, Vol. 47, No. 1(2011), pp.183~194.
- Heinrich August Winkler (ed.) *Griff nach der Deutungsmacht. Zur Geschichte der Geschichtspolitik in Deutschland* (Göttingen,

2004).

Henning Köhler, "Geschichtspolitik?", *Merkur* 1: 41(1987).

Israel Gershoni (ed.), *Arab Responses to Fascism and Nazism: Attraction and Repulsion* (Univ. of Texas Press, 2014).

Jeffrey Herf. "Nazi Germany's Propaganda Aimed at Arabs and Muslims During World War II and the Holocaust: Old Themes, New Archival Findings." *Central European History*, 42(4)(2009), pp.709~736.

Klaus-Michael Mallmann, Martin Cüppers. *Halbmond und Hakenkreuz: Das Dritte Reich, die Araber und Palästina* (Darmstadt, 2006).

Matthias Küntzel, *Djihad und Judenhass. Über den neuen antijüdischen Krieg* (Freiburg, 2002); Published in English as *Jihad and Jew-Hatred. Islamism, Nazism and the Roots of 9/11* (New York, 2007).

Marianne Enigl, "Zeitgeschichte: Der österreichische SS-Offizier Skorzeny und der Mossad", *profil*, 2016년 4월 5일)

Peter Novick, *The Holocaust in American Life* (Boston, 1999).

Peter Wien,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German Academia and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the Arab Lands and Nazi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42, no.2(2010) pp.311~321.

René Wildangel, *Zwischen Achse und Mandatsmacht: Palästina und der Nationalsozialismus*, Zentrum Moderner Orient Studien, vol. 24 (Berlin, 2007).

Stefan Wild, "National Socialism in the Arab near East between 1933 and 1939", *Die Welt des Islams*, New Series, Bd. 25, Nr.1/4

(1985), pp.126~173.

Ulrike Freitag, Israel Gershoni, "The Politics of Memory. The Necessity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Arab Responses to Fascism and Nazism",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7(2011), pp.311~331.

Walther Hubatsch (ed.), *Hitlers Weisungen für die Kriegführung 1939-1945. Dokumente des Oberkommandos der Wehrmacht* (Frankfurt a. Main, 1962).

Yehoshafat Harkabi, *Arab Attitudes to Israel* (Jerusalem, 1972).

Zvi Elpeleg, Shmuel Himelstein, *The Grand Mufti: Haj Amin Al-Hussaini, Founder of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Routledge, 1993).

〈국문초록〉

나치 독일과 아랍의 반유대주의 동맹

- 지속과 단절을 둘러싼 논쟁

윤용선

본 논문은 193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불 제국주의와 팔레스타인 정착 유대인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형성된 나치 독일과 아랍 민족주의의 동맹을 다루고 있다. 나치-아랍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한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21년 영국에 의해 예루살렘의 대무프티와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이슬람 최고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된 알후세이니(Amin al-Husayni)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지도자로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그는 자신처럼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 한 시오니즘 운동과 이에 우호적이었던 영국 위임통치에 저항해 1936년 봉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봉기에서는 이슬람주의, 반제국주의,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 등이 동원 이데올로기로 등장했으며, 훗날 아랍 세계에 확산해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랍 반유대주의는 이때 시작되었다.

아랍의 반유대주의는 중동 분쟁 및 팔레스타인 분쟁과 결부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일부는 그것을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절망과 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아랍의 반유대주의에서도 우려할만한 유대인 혐오가 존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은 9.11 이후 부각된 이슬람 지하디즘의 기원을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찾으며 '이슬람파시즘(Islamofascism)'이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줄고는 나치즘과 아랍 반유대주의의 관계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중동/팔레스타인 갈등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여부에 관한 대립적인 두 견해와 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여러 논자의 입장을 스케치하고, 이어서 이러한 입장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에 내재한 역사정치적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아랍의 반유대주의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인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도 아울러 평가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아랍 반유대주의, 나치독일, 아랍 민족주의, 아민 알후세이니, 팔레스타인

〈Abstract〉

Anti-Semitic alliance between Nazi Germany and Arabs

- A Controversy abou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Yun, Yongseon

This paper deals with the alliance of Nazi Germany and Arab nationalism, formed in the 1930s and during World War II, as a common front against the British imperialism and Jewish settlers in Palestine(Ishuv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Nazi-Arab alliance a figure played a decisive role. Amin al-Husayni Al Hussini, who was appointed by the British Mandate in 1921 as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of Jerusalem and the Grand Mufti of Jerusalem, was the leader of the Palestinian Arabs and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a nation-state. He led the 1936 uprising, resisting the Zionist movement and his friendly British mandate to try to build a Jewish state in Palestine like him. In the uprisings, Islamism, anti-imperialism, anti-Sionism, and anti-Semitism emerged as mobilization ideologies, and later Arab anti-Semitism began to spread to the Arab world and still affect today.

Arab anti-Semitism is controversial, coupled with Middle Eastern and Palestinian conflicts today. Some argue that it is an expression

of the despair and anger of the Palestinian Arabs, while others believe there is a fear of Jewish hatred in Arab anti-Semitism, and that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Palestinian conflicts. In addition, some scholars search the origin of Islamic Jihadism, which emerged after 9.11, in Nazi Germany in the 1930s, and coined the term "Islamofascism."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debate in academia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Nazism and Arab anti-Semitism. More specifically, let us look at two opposing views and arguments about whether Arab anti-Semitism is the cause or results of the Middle East / Palestine conflict. In this regard, I will first sketch the positions of various journalists and then interpret the meaning inherent in these position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aspects inherent in this discussion.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assess what political implications Arab anti-Semitism has in relation to the legitimacy of the state of Israel, the heart of the Palestinian issue.

Key words : Arab anti-Semitism, Nazi Germany, Arabnationalism, Amin al-Husayni, Palestine

투고일 : 2020년 1. 15 / 심사일 : 2020년 1. 25 ~ 2. 12 / 게재확정일 : 2020년 2. 20

필자소개 : 윤용선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서양현대사 전공으로 1998년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